

## 민주 중량급 예비후보들 공천 탈락 반발

## 2013 하계U대회 광주유치 범시민지원단 뚫다

# 무소속 출마 '태풍의 눈'

### 총선 D-28

### 김홍업·박지원씨 행보에 촉각

12일께 통합민주당의 호남지역 공천 결과가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중량급 예비 후보들이 대거 무소속 출마에 나서거나 나설 계획을 갖추고 있어 광주·전남지역 총선구도에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는 일부 인사들은 지역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공천=당선'이라고 여겨온 통합민주당 주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11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공심위의 공천 배제 기준에 의해 공천심사 자체가 좌절된 일부 인사들과 1차 후보 압축 과정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우선 통합민주당 입당이 무산된 강운태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 선언과 함께 광주 남구 바닥을 다지며 통합민주당 후보와의 일전에 나서고 있다.

또, 1차 후보 압축 컷-오프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도 잇따를 전망이다. 압축 후보군에 포함되지 못한 광산구청장 출신의 송병태 후보는 "공심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역시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한 국장근 전 의원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담양·곡성·구례 지역구에서의 무소속 출마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컷-오프 탈락 예비후보들도

"공심위의 후보 압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추가 무소속 출마 선언도 잇따를 전망이다.

여기에 공심위의 공천 배제 기준으로 공천 기회가 박탈된 해남·완도·진도의 이정일 전 의원에 공천 결과를 주시하며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민주당 공심위의 공천 배제 결정에 맞서 재심 청구를 해놓고 있는 무안·신안의 김홍업 의원과 목포의 박지원 전 비서실장의 행보는 광주·전남지역 총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합민주당이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김 의원과 박 전 실장이 무소속 출마에 나설 경우, 광주·전남지역 무소속 돌풍의 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속 돌풍의 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통합민주당이 호남지역 30% 물갈이를 천명함에 따라, 최종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현역의원들이 무소속 출마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총선구도는 당초 통합민주당 후보의 절대 우세 분위기에서 무소속 출마에 나선 거물급 인사들과 치열한 경쟁구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단 호남지역에서는 공천 배제 대상자와 공천 탈락자 가운데 상당수가 무소속 출마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김홍업 의원과 박지원 전 비서실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광주·전남지역 총선구도 변화의 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범시민지원단' 발대식에서 범시민지원단 리더들이 대회 유치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이희범 대회 유치위원장, 안순일 시교육감을 비롯해 범시민 지원단 1천500명이 참석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이호성 돈 때문에 범행"

### 경찰, 1억원 용처 확인 ... 형에게 "아들 부탁" 편지

서울 마포구 창전동 김모(45·여) 씨와 세 딸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전직 프코야구 선수 이호성(41)씨가 돈 문제 때문에 김씨 모녀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광주서부경찰은 3년 전 이호성 씨와 동업을 하다 실종된 조모(당시 36세)씨 실종 사건도 이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조씨 가족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7·8면〉

홍성삼 마포경찰서장은 이날 수사 브리핑에서 "이씨가 김씨의 전세금 1억7천만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1억원의 용처는 확인하고 남은 7천만원의 사용처를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김씨 모녀 4명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김씨와 둘째, 셋째 딸은 질식사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중에 이씨와 만난 첫째

딸은 두부 손상이 직접적인 사인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실종 사흘 전인 지난달 15일 오전 11시 40분께 은행을 직접 찾아가 정기예금 1억7천만원을 해약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뒤 시중 은행 5곳을 돌며 3천만~3천500만원씩 분산 예치했다. 이어 김씨는 실종 당일인 지난달 18일 오전 은행 5곳을 돌며 이 예금을 다시 현금으로 모두 인출했다. 경찰은 이 돈이 이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18일 오전 11시30분께 귀가했고 같은 날 밤 9시 50분께 이씨가 김씨의 집으로 들어가 '대형 가방'을 밖으로 실어내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같은 상황을 토대로 이씨가 18일 오전 11시30분에서 오후 9시50분 사이에 김씨의 집에 들어가 김씨 모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범행 다음날인 19일 오후 광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이모씨를 만나 "형에게 입금해달라"며 5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날 8일 또다시 이 여성을 만나 5천만원이 든 통장을 건네며 "1천만원은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4천만원은 30대 여성 차모씨에게 보내라"고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앞서 자신의 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머니와 형, 아내, 아이 등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밝히고 특히 "아들을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친구인 김우현 광주시야구협회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옛 시절이 행복했다. 하늘나라로 먼저 가 있을게"라며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을 적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 민주 '현역의원 30% 물갈이' 오늘 확정

### 공심위, 공식 발표는 하지 않기로 호남 일부 지역 공천자 발표 가능

현직 의원을 포함한 1차 압축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최종 취합되면서 통합민주당은 12일 호남 현역의원 중 '30% 물갈이' 대상을 확정키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식 발표는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11일 오후 당산동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호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1차 공천심사 결과를 계량화한 뒤 최종 평가작업을 진행했다. 박경철 공심위 간사는 오후 브리핑

에서 호남지역 공천과 관련, "1차 압축과정을 거쳐 호남지역 공천자들이 절반 정도로 압축된 상황"이라며 "(현역의원 탈락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교체대상) 30%를 결정하고 발표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2차 압축 때는 탈락하는 현역의원들이 빠진다"고 말했다.

공심위는 12일 중 2차 압축작업을 끝낸 뒤 1, 2위 후보 간 점수 편차가 큰 지역의 후보자 명단을 확정해 당 최고위원회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심위는 그러나 편차가 크지 않은 경합지역은 경선 등의 추가 압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중 호남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호남의 경우 경합지역이 대부분이고 최고위원회의의 논의를 남겨두고 있어 일부 지역 공천 발표도 13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공심위는 또 호남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북수(2~3인)후보 신청 59개 지역과 4인 이상의 경합지역 14곳 등 총 73곳 가운데 1, 2위 후보자 간 점수 편차가 큰 지역의 경우 공천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조선산업 '고용 효과'

### 전남, 대한조선 등 2년간 6천여명 취업

조선산업이 전남지역 고용의 효자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06~2007년) 취업한 인구는 약 4만명이며 이중 조선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분야에 취업한 지역민은 15%인 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선 분야 취업은 상호중공업과 대한조선 등 각 조선업체들이 직접 고용하는 인력과 직업훈련소 양성 과정을 거친 인력, 전남도 등이 산자부 지역혁신산업기반 구축사업으로 추진중인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 과정을 마친 인력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중 전남도와 노동부, 한국폴리텍V대학 목포캠퍼스 등이 공동 추진 중인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은 전남지역 조선업체의 기능인력난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은 지난 2005년 11월 시작돼 2008년 9월까지 3년 동안 추진되며, 11일 현재 7기(1기는 3개월 과정) 훈련 과정이 끝나 총 966명이 수료했다.

이를 반영하듯 취업자(966명) 중 전남지역 출신자가 56%(541명)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 31%(299명), 수도권 8%(78명), 영남·충청 등 기타 5%(48명) 등의 순이었다.

대한조선과 상호중공업은 이 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 이외에 자체 교육시설인 기술교육원 프로그램(3개월 과정)을 운영해 필요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특히 대한조선은 최근 기술교육원 제1기 과정을 마친 교육생 172명 전원을 자사에 고용했으며, 현재 제2기 교육생 200여명이 훈련중인 것을 비롯해 올 해 총 2천여명의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기름값 올려 팔자"

### 광주·전남북 주유소들 담합

사상 최악의 고유가 속에 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가 지역 주유소에 기름값을 올려 팔도록 지시하는 등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 주유소협회는 이미 2003년과 2004년 같은 혐의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도 가격인상행위를 요구했고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운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와 전북지회가 유가를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회는 지난해 2월8일 회의를 열고 휘발유는 리터당 1천399원, 경유는 1천159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한 뒤 다음날부터 지회 직원들이 국도 1호선(나주~목포구간) 등지의 주유소를 돌며 가격 인상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회원 주유소의 86.5%가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30~84원 인상한 1천399원으로 맞췄다. 경유도 전년보다 74~136원 높은 1천159원으로 인상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가격을 맞춘 것은 각업주들이 지회의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지적이다. 지회 회원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광고물 설치나 불법유 취급 등을 이유로 해당 업소를 구형 등에 고발함으로써 '불이익'을 준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